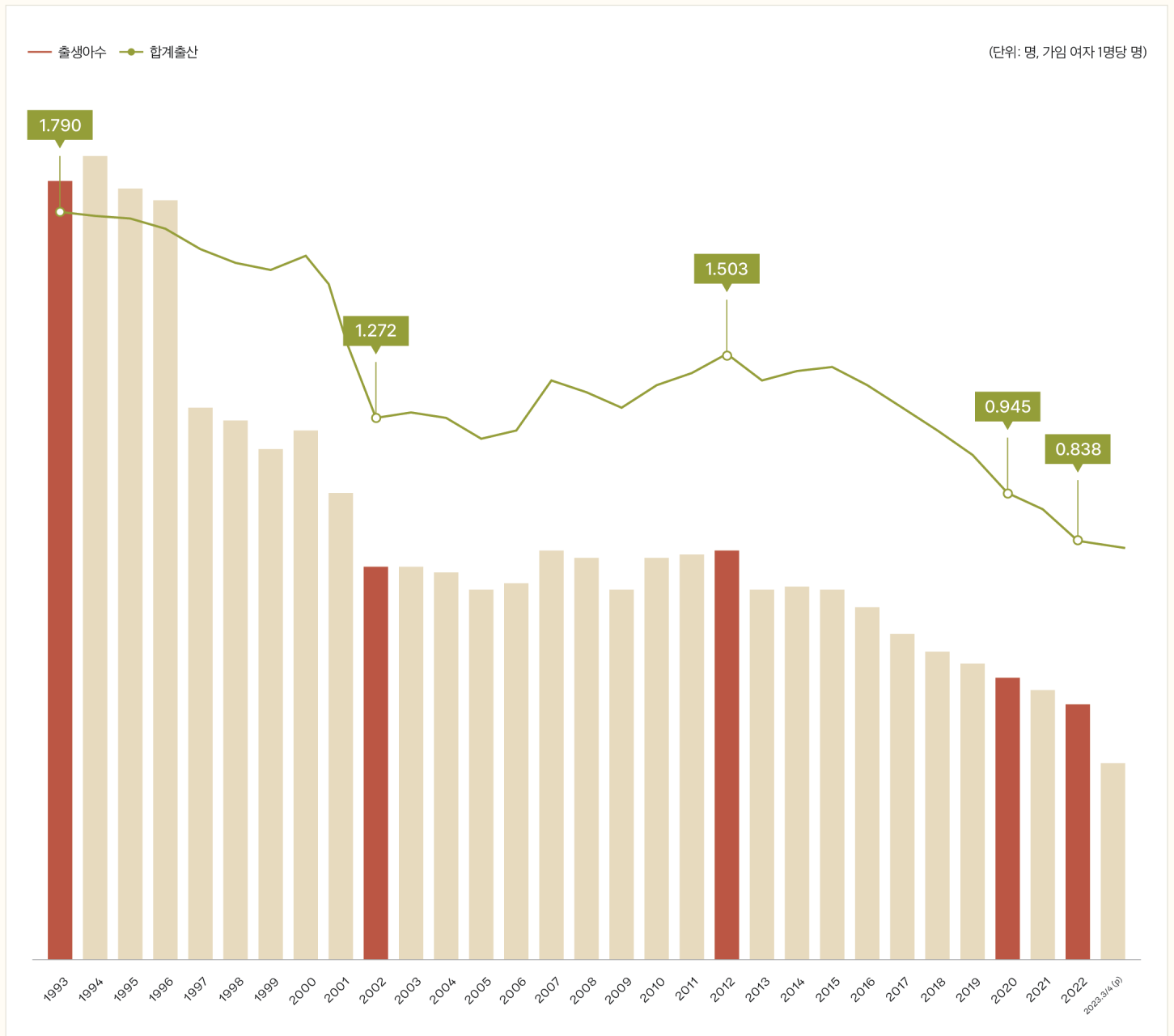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경남은 30년간 어떻게 변했을까?

이혜림(연구위원)

경남의 합계출산율 추이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지난 30년간, 합계출산율을 10년 주기로 살펴보면,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중단 후인 1993년 1.790에서 2002년 1.272로 감소했고, 2012년 1.503 수준까지 회복했으나, 2020년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2022년 0.838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각 년도). 주) P: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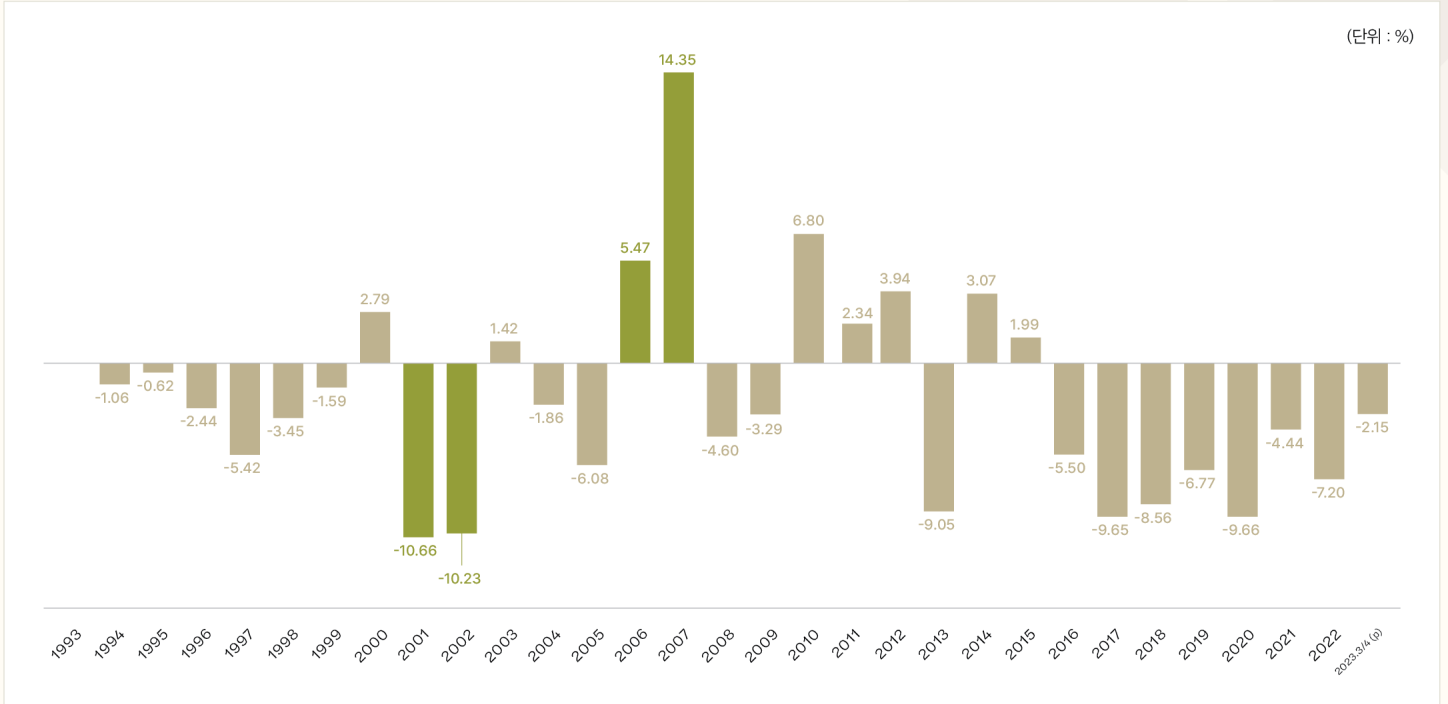


합계출산율이란?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고,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해서 구한다.

○ 경남의 합계출산율 증감률 추이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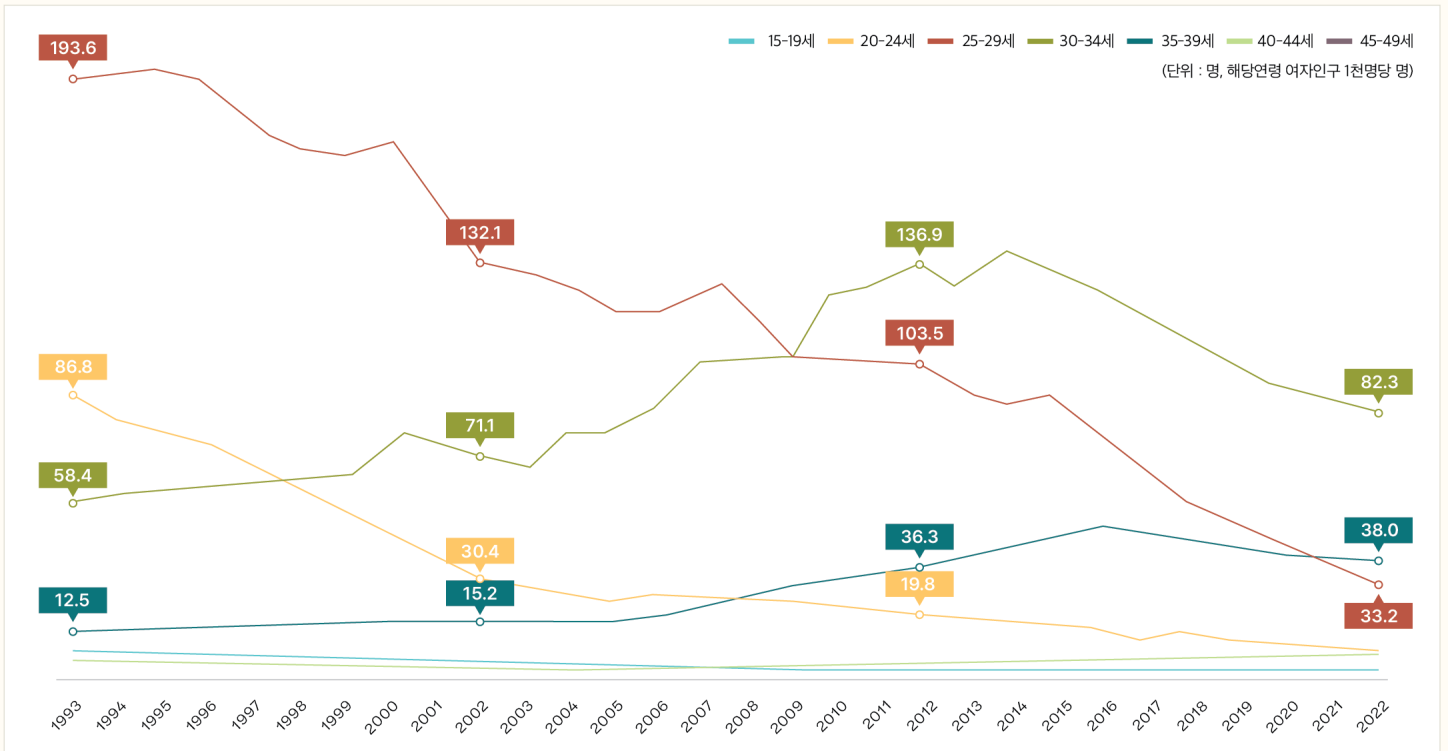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합계출산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해는 2001년(-10.66%), 2002년(-10.23%) 등의 순이 고, 증가한 해는 2007년(14.35%), 2006년(5.47%) 등의 순이나, 2016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각 년도)

○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지난 30년간, 합계출산율의 증감률 추이에 따르면, 모의 출산 연령대는 높아지고, 20대의 출산율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을 기점으로 30~34세의 출산율이 25~29세보다 높아졌고, 2021년에는 35~39세의 출산율이 25~29세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40~44세의 출산율이 20~24세 출산율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각 년도)